

2016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2015년 12월 19일 시행 - 이선주 교수 해설

1. 우리나라 선사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석기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유럽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 도끼가 출토된 지역이다.
 - ②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 ③ 신석기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이 출토되어 신석기 후기에는 이미 가부장적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을 사용하던 시대에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도 따로 설치하였다.

답 2

①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후기의 유적지가 아니라 전기 구석기의 유적지이다.

② 신석기 시대의 토기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저무문초기 (이른 민무늬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토기 (기하문 , 어골문 토기)



변형평저줄문토기(뇌문토기)

③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리) 농포동 유적은 남성조각품이 아니라 여성조각품이다. 이는 모계사회의 숭배사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가부장적 사회는 청동기시대에 가서야 가능한 것이다.

④ 가락바퀴를 사용하던 시기는 신석기이다. 신석기때는 움집이 원형 또는 방형의 움집이 있었으며 특징은 중앙에 화덕이 있었다. 화덕의 위치가 벽쪽으로 이동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 가서야 있는 형태이다.



[신석기] 원형, 방형, 정사각형



[청동기] 직사각형 (장방형) 형태

2. 다음의 유물이 제작·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장이 등장하였고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
- ② 고인돌과 돌널을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 ③ 농경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정착 생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 ④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거주하였으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이동 생활을 하였다.

답 4

사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물의 시기는 청동기 시대이다. 맨 왼쪽의 뿔족한 것은 비파형 동검, 가운데 있는 것은 미송리식 토기, 마지막의 그림은 반달돌칼(벼이삭을 자른 증거물)이다.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강력한 통치력을 지는 왕은 없었고, 군장이 등장하였고, 잉여생산물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서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 또한 고인돌은 무덤으로 지배자가 죽으면 매장하고 고인돌을 세운 것이다. ④는 구석기의 시대를 말한 것이다.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이동 생활을 한 시기는 구석기때이다.

3.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②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 ③ 위만의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진번, 임둔 등을 복속시켰다.
- ④ 고려 초에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답 4

- ④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이다. 또한 고조선이라는 단어는 역사학에서 시대구분을 하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할 뿐이며, 단군이 존재한 시기의 고조선은 ‘조선’이라는 용어로 문헌 기록에 나와있으면 , 훗날 태조 이성계가 건국(1392년)하는 ‘조선’과 그 명칭이 동일하여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조선’이라 역사학에서 말하는 것이다.

4 다음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종류라 하였다. 이 교의 기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3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을 교화하였다. 즉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것은 노나라 사구의 취지이다.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종지였으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것은 축견태자의 교화 그대로이다.

- ① 당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에서 벼슬하다가 당 희종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는 격문을 지어 명성을 떨쳤다.
- ② 894년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개혁을 요구하고 아찬의 벼슬에 올랐다.
- ③ <계원필경>, <제왕연대력>을 저술하였다.
- ④ 발해에 대하여 고구려 후예들이 건국한 것으로 이해하고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다.

답 4

제시된 내용은 신라 최치원이다. 이 사람은 875년 신라하대의 인물로 당나라에 유학한지 7년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裴瓚)이 주관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다. 그는 유교사관(儒敎史觀)에 입각해서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표형식으로 정리한 《제왕연대력 帝王年代曆》이다. 《제왕연대력》에서는 거서간(居西干)·차차웅(次次雄)·이사금(尼師今)·마립간(麻立干) 등 신라왕의 고유한 명칭은 모두 야비해 족히 칭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왕(王)으로 바꿨다. ④는 조선후기 유득공의 설명이다. 발해를 우리의 민족이 세운 것으로 인식한 것은 고려 초기에 멸망한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고려에서 흡수한 것이 있고, 훗날 조선 후기에 가서야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국을 고구려의 후예가 건국한 것으로 인식하여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역사서를 편찬에 이른다.

5. 다음은 발해 정효공주묘지명 내용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사실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의 넷째 딸이다. ... (생략) ... 아아, 공주는 대흥(大興) 56년(792) 여름 6월 9일 임진일(壬辰日)에 궁 밖에서 사망하니, 나이는 36세였다. 이에 시호를 정효공주(貞孝公主)라 하였다. 이 해 겨울 11월 28일 기묘일(己卯日)에 염곡(染谷)의 서쪽 언덕에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예의에 맞는 것이다. 황상(皇上)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 정침(正寢)에 들어가 자지 않고 음악도 중지시켰다.

- ① 정효공주는 발해 제3대 문왕(文王)의 넷째 딸이다.
- ② 문왕은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의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轉輪聖王)을 자처하였다.
- ③ 이 무덤은 중국 용두산(龍頭山) 고분군에서 발굴되었다.
- ④ 이 무덤은 벽돌로 쌓았으며 벽화가 발견되었다.

답 2

정효공주는 문왕의 4째 딸이다. 문왕(대흥무)은 불교를 중시한 왕이다. 스스로를 불교적 성왕(聖王)이라고 자처하였던 국왕이다. 문왕은 딸이 있었는데,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정혜공주 (문왕의 둘째 공주) 묘	정효공주(문왕의 넷째 공주) 묘
위치	동모산 돈화시 육정산	중경 화룡현 용두산
무덤형태	굴식돌방무덤	벽돌무덤
벽화	벽화는 없다고 추정함	12인물상 벽화가 존재
구조	모임줄 구조	모임줄구조

* 굴식돌방무덤은 고구려적 요소이고, 벽돌무덤은 중국 당나라적 요소이다.

* 문왕 업적

1.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이동하였다.
2. 스스로를 불교적 성왕이라 하였다. 불교중시
3. 신라도(신라와 통교위해) 개설하여 외교관계 대립을 해소 노력
4. 주자감 국립대학 설립

6. 다음의 사건이 벌어진 왕대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무리들이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토벌하였다. 마침내 그 성을 함락하여 그 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 ①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 ② 각간 위홍이 향가집<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
- ③ 왕의 장인 김흠돌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 ④ 문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답 2

박스안에 시대는 신라 중대 신문왕때(7세기) 이다. 신라 중대의 특징은 왕권이 강하였고, 하대의 특징은 왕권이 약했다. 안승은 고구려 부흥 운동의 중심인물이다. 따라서 조카뻘 된다고 하니 시기가 삼국통일을 이룬 얼마 직후 신라의 중대임을 알 수 있다. ‘금마저’는 지금의 전북 익산을 말한다. 신문왕은 집권 시작부터 귀족을 숙청하고,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밀어붙여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귀족의 강성함과 반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 증거는 달구벌(지금의 대구)로 천도를 하려하였다. 그 이유는 대구는 분지라서 외적의 방어에 유리하고, 현재의 경주는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 전국적 한반도 통치에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지방에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나 경주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고 만다.

* 김흠돌 반란 : 신문왕이 집권초기 681년에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이 반역을 하였는데,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반대 세력의 귀족들을 숙청하여 왕권의 안정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녹읍의 폐지 :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여 조(租)만을 거두게 하여, 조와 노동력을 다 같이 징발할 수 있는 제도인 ‘녹읍’을 폐지하여, 관리들의 농민의 인신적 지배를 못하게 하였다.

②는 ‘위홍’이라는 인물로 미루어 보아 신라하대임을 알 수 있다. 위홍은 신라 진성 여왕 때 (?~888). 여왕의 총애로 각간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으며, 왕명으로 대구 화상과 함께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을 엮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7. 우리나라 초기 국가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내용의 연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 여 -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이때는 형욕을 결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 ② 고구려 -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성에 모신다.”
- ③ 동 예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④ 옥 저 -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탁무와 흡사하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답 4

옥저는 제천행사가 문헌 기록에 없다. ④의 내용은 옥저가 아니라 ‘삼한’의 내용에 해당한다.

* 풍습정리

부여 - 영고, 고구려 - 동맹, 동예 - 무천, 삼한-계절제 5월과 10월

8.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월에 고구려 태왕의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영원토록 형제
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하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동으로
왔다. …(중략)… 매금에게 의복을 내렸다.”

- ①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 ② 신라가 죽령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다.
- ③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수묘인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성과를 기록한 비문 내용의 일부이다.

답 1

박스안 내용은 ‘충주 고구려비’를 말한다. 여기서 ‘매금’이라는 단어는 신라 상대의 왕호로 올진 봉평비에도 존재하는 단어이다. 이 당시에는 타국을 점령하여 직접 통치하는 것 보다 조공을 바치고, 자기의 나라를 황제국으로 떠받드는 것을 더 중시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대국은 신라 소국을 직접 점령하여 통치하지 않은 이유이고, 이처럼 형제지국이나 군신관계의 상하의 관계로 두는 것이 통례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천의 중심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9. 백제 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능산리 고분 옆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다.
- ② 송산리 고분의 한 곳에서 일제 강점기 때 도굴되지 않은 무령왕릉이 발견되었다.
- ③ 송산리 6호분의 벽돌무덤은 벽화를 그려 넣지 않았다.
- ④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연꽃 등 화려한 무늬의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답 3

송산리 6호분의 벽돌 무덤은 벽화가 있다. 웅진시대의 유일한 벽화이다.

10. 신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시대 김암(金巖)은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 ② 발달된 수학지식은 불국사·석굴암 등 사찰 건축에 실제 응용되었다.
- ③ 역법은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였다.
- ④ 다보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다.

답4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다보탑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하였다. 1966년 10월31일 석가탑의 보수작업을 진행하다 발견하였다. 2층 탑신부에 봉안이 된 금동사리와 함안에서 다른 사리장엄구와 함께 나왔다. 이는 한줄에 6-7자를 새긴 62줄 짜리로 목판 12장으로써 한지에 찍어낸 두루마리형태로 발견 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이고,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재이다.

11. 신라의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 밤중에 맛있게 마신 물이 해골 속에 담긴 물임을 뒤늦게 알고, 진리는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 ②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하였다.
- ③ 신라 왕실 중심의 귀족불교 대신에 정토종을 보급하여 불교를 대중화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④ 불교의 여러 이론(異論)을 10문으로 정리하여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짓고, 여러 종파를 융합하려 하였다.

답 2

부석사(浮石寺)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이 왕명을 받아 세운 화엄종 사찰로서,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의 봉황산 중턱에 있다. 부석사는 특히 의상이 화엄의 큰 가르침을 베풀던 곳으로, 의상을 "부석존자"라 하고, 그가 창시한 화엄종을 "부석종"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 원효

원효(元曉, 617년 ~ 686년 4월 28일(음력 3월 30일), 경상북도 경산시)는 삼국시대와 신라의 고승이자 철학자, 작가, 시인, 정치인이다. 원효는 법명이고, 속성(俗姓)은 설(薛), 속명은 사(思), 서당(誓幢) 또는 신당(新幢)이며, 별명은 모(毛), 호는 화정(和淨)이다. 아버지는 내말 설담날이며, 태종무열왕의 둘째 사위이고 설총이 그의 아들이다. 본명은 설사(薛思)이나, 보통 한국에서는 법명을 따라 원효대사로 불린다. 경주 설씨와 순창 설씨의 중시조인 설총의 생부이며, 한국불교 최초의 깨달은 스님, 한국 최초의 대치승으로도 유명하였다.

661년(문무왕 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당항성 근처의 한 무덤에서 잠이 들었다. 잠결에 목이 말라 달게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다시 보니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음을 알고 급히 토하다가 “마음이 나야 모든 사물과 법이 나는데요,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이 없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龕墳不二). 부처님 말씀에 삼계(三戒)가 오직 마음뿐이라 한 것을 어찌 잊었더냐? 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달아 유학을 포기하였다. 그 뒤 분황사에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통불교(通佛敎)를 제창하며 민중 속에 불교를 보급하기에 노력했다. 이처럼 불교 대중화의 노력도 그에게 볼 수 있었다.

* 화쟁사상 = 대승기신론소 + 십문화쟁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대립극복에 주력, 즉 원융회통 주장함,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 경전의 불교사상을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려함. 훗날 이는 고려 전기의 ‘의천’에게 영향을 줌

12. 다음 중 후삼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궁예는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 ② 견훤은 오월(吳越)과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추진하였다.
 - ③ 왕건은 궁예의 신하가 되어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등 영토 확장에 공을 세웠다.
 - ④ 견훤이 넷째 아들 신검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장남 금강이 정변을 일으켰다.

답 4

후백제의 견훤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신검이 장남이고, 금강은 4째 아들이다.

13. 고려 초 역대 국왕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건국 이후 시종일관 거란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 하려고 노력하였다.
 - ② 혜종은 호족세력의 위협을 받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칭제건원을 시행하였다.
 - ③ 정종은 서경 천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④ 광종은 역분전을 분급하여 지배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답3

*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을 배척하였다. ‘시종일관 거란과 우호관계’인 것은 없다.

* 역분전은 태조때 분급한 것이다.

14. 고려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2세기에 처음으로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되고, 큰 군현에 향학(鄕學)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 ② 국자감의 교육 분야에는 유학을 교육하는 국자학 등과 함께 율학, 산학 등을 교육하는 잡학(雜學)도 있었다.
 - ③ 국자감의 잡학에는 문·무관 8품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 ④ 사학십이도의 시초인 구재학당(九齋學堂)에는 9경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9개의 재(齋)가 설치되었다.

답1

경학박사가 12세기에 처음으로 경학박사가 파견된 것이 아니고, 경학박사는 이미 987년 성종 때 파견하였다.

① 금이 건국된 뒤, 고려가 금을 사대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③ 송이 건국하자, 고려가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었다.
 ④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설치하였다.

신돈을 등용하여 권세가가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등의 개혁 정책을 시행하였다.

17. 다음 중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 ② 철전인 건원중보와 동전인 해동통보 등을 만들어 널리 사용하였다.
- ③ 직전법이 시행되어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었다.
- ④ 이암은 원나라에 갔다가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저술하였다.

답 1

①고려 후기 충선왕때

②고려는 화폐는 만들었지만 널리 사용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삼베로 물건의 거래 대금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③ 직전법은 조선 세조때 현직관리에게 지급한 것이다. 농민하고는 아무런 관련없다.

④ 이암은 [농상집요]를 저술한 것이 아니고 원의 농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만 한 것이다.

18. 다음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선 시대에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다.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을 중요하게 여겨 (㉠) 를/을 편찬하였다. 그 밖에도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 과/와 <고려사절요> 등을 완성하였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 를/을 편찬하였다.

- ① ㉠ - 임진왜란 이전까지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의 4대 사고에 보관하였다.
- ② ㉡ - 조선 건국 이후부터 착수하여 수정을 거쳐 15세기 중엽에 편년체로 편찬된 정사이다.
- ③ ㉢ -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한 비판적이고 고증적인 역사책이다.
- ④ ㉠,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답 1

괄호에 들어갈 것은

㉠ 조선왕조실록 (태조부터 철종까지 기록함)

㉡ 고려사

㉢ 동국통감

②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

③ 무관

④ ㉢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아니다.

19. 다음 대몽 항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 ㉠ 무신정권은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적 대응을 병행하였다.
- ㉡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고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 ㉢ 항전을 주도한 최씨정권은 몽골과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 대몽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① ㉠, ㉡
- ③ ㉢, ㉣

- ② ㉡, ㉢
- ④ ㉠, ㉣

답 4

- ㉠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판각한 것은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대구 부인사에 있음)이 몽고에 의해 불에 탔기에 다시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현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1236년 시작하여 1251년 9월에 완성되었다. 현재의 판본은 1,516종에 6,815권, 경판의 수는 8만 1,258매이다.

* 초조대장경

1011년(현종 2)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이를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시작한 대장경 조조는 만 18년이 소요되었다. 이것을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하는데 송나라 판판대장경의 내용과 체재를 토대로 하여 복각하였다.

*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陝川 海印寺 大藏經板) 또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국보 제32호로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 있으며,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막아내고자 1236년(고종 23년) 강화군에서 조판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년) 완성한 고려의 대장경이다. 196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諸)경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 ㉢ 최씨 정권은 몽고와 화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항전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삼별초의 항전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왕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사직설>을 여러 도(道)의 감사와 주·군·부·현과 서울 안의 시직(時職)·산직(散職)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고, 임금의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왕정(王政)의 근본이므로, 내가 대양 농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하였다.

- ① 6진을 개척하고 4군을 설치하여 북방개척에 큰 업적을 세웠다.
- ② 홍문관을 설치하여 관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하였다.
- ③ 간儀(簡儀)를 만드는 등 천문학이 발전하였다.
- ④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이 차례로 주조되었다.

답 2

박스 안에 시기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으로 보아 세종대왕때의 것이다. 여기서 정답이라고 하는 ②의 홍문관 설립 시기는 논란이 많이 있으나, 대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홍문관의 성격을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바라본다면 세조 9년의 장서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은 구별되어 다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성종원년에 집현전의 직제가 중첩된 예문관은 집현전의 직제와 제도의 불완전한 복합체였고 명칭도 예문관이었으므로 이를 홍문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집현전의 후신으로서의 홍문관의 설립 시기는 성종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④ 활자(인쇄시에 쓰는 활자임)

- * 경자자는조선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단점을 보완하여 1420년 경자년에 만든 두번째 동활자이다.
- * 갑인자는 1420년에 만든 경자자(庚子字)의 자체가 가늘고 뻣뻣하여 보기가 어려워지자 좀 더 큰 활자가 필요하다하여 1434년 갑인년(甲寅年)에 왕명으로 주조된 활자이다.

21. 다음 중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외역전과 내장전을, 관청의 경비를 위해 공해전을 두었다.
- ㉡ 문종 30년의 경정 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 액수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감소되었으며, 한인·잡류에게도 지급되었다.
- ㉢ 경종 원년의 시정 전시과는 4색 공복을 기준으로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 목종 원년의 개정 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직·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한외과(限外科)가 없어졌다.
- ㉤ 6품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1 (발표된 답은 2번이라고 하나 본인은 1개임을 주장, 그러나 다른 근거를 대면 바꾸겠음)

- ㉠ 틀림 - 외역전은 향리에게 지급한 땅이고, 내장전은 왕실에 배당한 토지이다.
- ㉡ 틀림 - 18과로 나누어 지급한 것은 목종때 개정전시과를 말한다.
- ㉢ 맞음
- ㉣ 틀림 - 한외과가 없어진 것은 문종때 경정전시과이다.
- ㉤ 틀림 - 구분전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6품이하의 관리의 자제로 무관직자에게 지급한 것이 한인전이다.

22. 다음 중 원 간섭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서예에서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 ㉡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석탑으로, 대리석이 아닌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 ㉢ 향가의 형식을 계승한 경기체가가 등장하였다.
- ㉣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편찬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3

원 간섭기는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던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 초기까지를 일컫는다.

- ㉠ 구양순체가 아니라 조맹부체이다
- ㉡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 ㉢ 맞음 : ~ 위 경기 엇더하리... 의 후렴구를 가진 것이다.
- ㉣ 맞음 : 이때는 민족의 자주성의 회복의 의미에서 집필된 것이다.

23. 다음 조선시대 지방통치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 ㉠ 지방관은 일정한 임기 동안 지방을 다스리되 출신 지역에 임명될 수 없었다.
- ㉡ 관찰사 이하 지방관은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 ㉢ 사족(士族) 세력이 강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주민을 토관(土官)으로 임명하였다.
- ㉣ 지방의 각 군·현 단위에는 중앙 6조를 모방한 6방이 있어 사무를 나누어 맡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답 4

- ㉠ 0
- ㉡ X - 사법, 행정, 군사 권한이 있었다. 입법권은 없다.
- ㉢ X - 사족하고 토관제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 토관제도는 우리나라 북단 함경도 지역에 파견되려는 관리가 잘 없고, 설사 파견되더라도 통치가 약하여, 그 지역의 유력세력에게 관리로 임명한 것이다.
- ㉣ 0 - 우리가 말하는 일명 사또의 밑에서 하급관현을 하던자를 향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중앙의 6조의 형태로 이방, 병방, 호방, 형방...등 6방을 두었다.

24. 다음 실학자와 그의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 ② 이금익은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연려실기술>을 저술하였다.
- ③ 안정복은 <열조통기>에서 한반도의 고대 여러 지명이 사실은 만주에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고증하였다.
- ④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 지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답3

* 주해수용은 영조때 만들어 졌다.

* 안정복의 열조통기는 역사책이고, 조선왕조의 역사를 각 왕별로 저술한 것이다.

25. 다음의 밑줄 친 비석이 세워진 계기가 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비석은 인조 17년(1639)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세워진 청 태종 공덕비이다. 비신의 높이가 385cm, 너비가 140cm에 달하고 이수(螭首)와 귀부(龜趺)를 갖춘 큰 비이다. 비문(碑文)은 이경석(李景奭)이 지었다.

- ① 전쟁 후에 두 나라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 ② 전쟁이 끝나고 청은 세자를 인질로 데려갔다.
- ③ 전쟁을 앞두고 조선은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립하였다.
- ④ 청군이 한양으로 진격하자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답 1

박스 안에 비석은 ‘삼전도비’이다. 이는 병자호란때 조선과 청국은 군신관계를 확인한 비석이다. 형제관계는 수립은 정묘호란때(1627년)의 일이다.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 도를 통틀어서 1결(結)마다 쌀 10두(斗)씩을 징수하되, 봄·가을로 등분하여 각각 5두씩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산중에 있는 고을은 매 5두마다 대신 무명 1필(匹)씩을 공납하였다. 대읍(大邑)·중읍(中邑)·소읍(小邑)으로 나누어 관청의 수요를 제하여 주고, 또 남은 쌀을 각 고을에 맡겨 헤아려 주어서 한 도의 역(役)에 응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선혜청(宣惠廳)에 실어 올려서 각사(各司)의 역(役)에 응하게 하였다.<효종실록>

- ① 광해군 때부터 시행하였다.
- ②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③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관리가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지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답 4

위의 제도는 대동법이다. 시작은 광해군때 시작하였고,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개선 제도 이지만 다시 이것도 부패하였다.

* 대동법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가 주요내용이었다.

-징수방법-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 상품경제 발전 -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④의 설명은 대동법과는 무관한 설명이다.

27.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접촉한 인물들이다. 그 접촉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 뮐렌도르프 ㉡ 하멜 ㉢ 오페르트 ㉣ 벨테브레(박연)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답 4

㉠ 1882 고종

뮐렌도르프(독일인)는 임오군란 후 결과로 조선정부에 고용된 외국인인데 청의 이홍장이 추천하였다.

㉡ 1653 효종

1653년(효종 4) 1월 배를 타고 네덜란드를 출발하여 바다비아를 거쳐 타이완에 도착했다. 그해 7월 64명의 선원과 함께 무역선 스페르웨르호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長崎]를 향해 가던 도중 폭풍을 만나 8월 제주도 부근에서 배가 난파되어 일행 36명이 제주도 산방산 앞바다에 표착했다.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의 심문을 받은 후 이듬해 5월 서울로 호송되어 훈련도감에 편입되었다. 그뒤 1657년 강진의 전라병영, 1663년(현종 4)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배치되어 잡역에 종사했다. 1666년 9월 7명의 동료와 함께 탈출,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1668년 본국으로 돌아갔다. 귀국 후 13년간의 한국 억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멜 표류기>를 저술했다. 이것은 한국을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당시 유럽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 1868 고종

독일 제국의 상인이자 항해가이다. 1867년, 조선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흥선대원군의 부친(남연군)의 유해를 묘소에서 꺼내 위협하려 하였으나, 묘소를 파헤치다 생석회 때문에 실패하였다.(남연군 분묘 도굴사건)

㉣ 1627 인조

1627년(인조 5년)에 아우버르케르크(Ouwerkerck)호로 바꿔 타고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했다. 동료 헤이스베르츠(Direk Gijsbertz) 및 페르베스트(Jan pierteree Verbaest)와 함께 땀감과 음료수를 구하러 제주도에 상륙했다가 관헌에게 붙잡혀 한양에 호송되고 훈련도감에서 근무했다. 조선의 이름은 '박연'이라고 한다.

28. 다음의 자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중앙과 지방의 군국기무를 도맡아 관할하는 기구이다.
 - 도제조는 현임 또는 전임 의정이 의례 겸하며, 제조는 재신으로 변경의 사정에 밝은 자를 겸임하게 하고, 정원은 없다.
 - 이·호·예·병 4조 판서 및 강화유수는 상례로 겸임케 하며, 유사당상 3명은 제조로서 군무를 아는 사람을 상주하여 임명한다.
- <만기요람>

- ① 국가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
- ② 고종 때 홍선대원군에 의해 폐지되었다.
- ③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 ④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창설되었다.

답 2

박스안에 설명은 비변사를 말한다.

비변사는 중종 때부터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낭관(郎官) 등의 관원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의 3의정이 겸임하기도 하고, 한성부판윤·공조판서·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혹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등이 겸임하는 등 때에 따라 달랐다. 임진왜란 때 비변사 관원은 도제조·부제조·낭청(郎廳) 등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 및 전직 의정이 겸임했으며, 제조는 2품 이상의 지변사재상뿐만 아니라 이조·호조·예조·병조의 판서와 강화유수가 겸임하였다. 이후 훈련도감이 창설되자 훈련대장도 예겸(例兼)하게 되었다. 부제조는 정3품으로 군사에 밝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 비변사 폐지

조선 후기에 비변사는 국정 전반을 총괄했는데, 공신집단·당파·외척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국정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에 의정부·6조·도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1801년 이후로는 노론 1당독재와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등 외척세력이 극대화되고, 이들이 비변사의 요직을 겸대하면서 국정을 자기들 멋대로 결정했다. 이는 통치질서의 문란을 가중시키고 매관매직의 성행, 가렴주구, 삼정문란, 민란 발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전제왕권의 재정립을 지향했던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한계를 규정하여 의정부의 국무총괄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는 외교·국방·치안관계만을 관장하게 했다가 다음해에는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했다.

29 다음은 서로 다른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에 관한 설명이다.
사건의 진행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전국에 12개의 목(牧)을 설치하였다.
- ㉡ 5도(道)와 양계(兩界)에 안찰사와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 ㉢ 전국을 13개의 도(道)로 나누었다.
- ㉣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 지방제도를 23부(府), 337군(郡)으로 바꾸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답2

㉠ 고려 성종2년 983년 처음으로 전국에 12목 설치

㉡ 5도는 대략 고려 예종(1105~1122년)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의 장관인 안찰사는 충렬왕 2년 안렴사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제찰사라고도 하였다가 다시 원이름인 안찰사로 돌아갔다. 이들은 도내의 현을 순찰하면서 수령에 대한 평가와 인사, 민생, 재판과 처벌, 조세 납부, 군사 지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계는 국경 지대에 있었고, 여기에는 국방을 위해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병마사는 국경 수비를 담당한 행정 구역의 장관이다.

㉢ 조선 고종 33년 (1896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팔도 중의 다섯 개의 도가 남·북도로 나뉘었고[1], 대한제국 및 일제 강점기 동안 이 체계가 변동없이 유지되었고, 현재 지방행정 체계의 모태가 되어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13도제는 건양 원년 칙령 제36호가 반포된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 조선 건국 초기 지방 행정 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목(牧)·부(府)·군(郡)·현(縣)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장관으로서 행정·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보살폈다. 목·부·군·현의 목사·부윤·군수·현감과 수령은 목민관으로서, 조세·부역 등을 징발하고 농사를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군·현 밑에는 면·리를 두고 지방민을 면임(面任)·이정(里正)으로 임명하여 수령의 통찰 하에 자치하도록 했다. 지방관은 행정·군사·사법 등 권한이 강대했으나, 임기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다.

㉤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로 1413년부터 이어온 8도제의 지방 행정 구역을 23부로 개편하고, 부·목·군·현을 군(郡)으로 일원화하여 23부(府) 336군(郡) 체제로 개편하였다. 부에는 부장관(府長官)을 두고, 군에는 군수(郡守)를 두었다. 시행한 지 불과 1년2개월도 지나지 않은 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30.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 ① 농촌 사회의 모순을 증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제치용론이었다.
- ②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 ③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보였다.
- ④ 존엄, 만물일체설로 지행합일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답 3

박스안의 인물은 조선후기 중상주의 실학자 박제가의 우물론이다. 이는 당시 성리학적 경제관인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여 “소비를 하여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주장하여, 자꾸 물건을 새로 사고 다시 생산하고 또 사시 물건을 사고..... 이 처럼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면 다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에 비유하여 충격적인 경제사상이었다.

* 당시 노론 당파는 두 파로 갈리게 되는데 그 것이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이다.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
성격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인성과 물성은 같다
파별	주로 충청도 노론(호론)	주로 서울 노론(낙론)
특징	* 주기론만을 고집한다 * 권상하, 한원진이 대표자 * 화이론에 영향	* 이의 중요성강조(주리론 포괄이해) * 김창협, 김원행, 이간 등 * 북학과에 영향

31. 다음과 같은 업적을 세운 국왕의 재위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세자 시절에 분조(分朝)를 이끌며 일본군에 항전
- 임진왜란 때 소실된 궁궐의 증건, 사고의 정비
-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

- ①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였다.
- ② 권력구조가 국왕을 지지하는 특정 당파에 편중되었다.
- ③ 남인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했다는 등의 명분으로 반정을 주도하였다.
- ④ 정인홍은 이언적과 이황을 문묘 제사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답 3

* 반정 주도는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 주도하였다.

* 박스안은 조선 임진왜란이후에 국왕에 오른 ‘광해군’이다. 1592년(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조선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광해군에게 자신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개전 직후 조선군이 연전연패하면서 북쪽으로 쫓기자 선조는 서둘러 18세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런 다음 평양을 거쳐 의주로 몽진하는 길에 영변에 다다른 선조는 국가비상사태 때 조정을 둘로 나누는 분조를 행하고 광해군에게 국사를 일부 위임했던 것이다.

* 광해군의 재위 시절

이때는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당쟁의 격화와 환관들의 횡포 때문에 국세가 대폭 약화되었다. 그 틈을 타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세력을 과시했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3대 쇼군이 되면서, 히라도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하고 영국과 통상을 허락하는 등 개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 개혁

이런 변화의 시기에 광해군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펼쳤다. 1608년 선혜청을 설치했고, 경기도 일원에 대동법을 실시하여 민간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었다. 대동법은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공물을 백성들에게 현물 대신 쌀로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32. 다음 중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토지 조사 사업에서 신고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부정되었다.
- ㉡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였다.
- ㉢ 헌병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경찰 업무는 보통경찰관 대신에 헌병경찰관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
- ㉣ 중추원은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행정 전반에 관해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2

㉠ O

㉡ O

㉢ X - 모든 경찰업무가 헌병경찰관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 X -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설립된 이후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로 회의를 소집하던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1916년부터 정기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였다. 즉 중추원 서기관장 명의로 중추원 의관에게 발송된 1916년 1월 19일자 문건에 의하면, 앞으로 매월 말일 예회例會를 개최하여 총독의 시정방침이나 기타 제반 시설에 대하여 시달하고, 구관 및 제도조사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하는데 협력한 자들과 대한제국 고위관료 가운데 조선총독부 관료로 충원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지위와 명망을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조선총독의 식민통치 보조역할 장치로 중추원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33.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의 영향으로 ㉠~㉣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케 하고 청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재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할 것.
-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악한 아전을 근절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재정을 충실히 할 것.

- ㉠ 청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 ㉡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간섭이 더욱 강화되었다.
- ㉢ 조선은 일본과 텐진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획득하였다.
- ㉣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 받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3

첫 번째 박스안에 내용은 1884년의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이다.

- ㉠ X -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이다. 1884년 11월 18일 일본 전권대사 이노우에가 대부대를 이끌고 한성에 들어오자, 조선에서는 좌의정 김홍집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22일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본이 요구한 3개 조건 가운데 공사관 건축비를 반감하여 2만원으로 하고, 이미 약정된 공사관 호위병을 1,000명씩 주둔시킨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대체로 일본 측 요구대로 타결되었다. 그리고 김옥균 등의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 ㉡ O - 갑신정변의 사태를 당시의 민씨 정권은 청군의 도움으로 다시 집권하게 되어 청의 신세를 지게 된다. 훗날 이는 조선에서 청의 입지만 강화시킨 꼴이 되고 만다.
- ㉢ X -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이후 청국과 일본국의 조약이다.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우 히로부미의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조선의 파병시 청과 일본의 사전통보규정을 하였다.
- ㉣ X - 일본으로부터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비를 받은 것 아니고 조선정부가 일본에 오히려 지불하는 내용이다.

34. 다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오라총관 목국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하여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 ① 19세기 이후 간도가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으로 바뀌면서 청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 ② 청 건국 후 조선과 청은 양국의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③ 조선은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 이범윤을 토문 감계사로 파견하였다.
- ④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1909년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답 3

박스안에 비문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이다.

③ 1903년 이범윤은 간도관리사이다. 토문감계사는 1885년에 ‘이중하’이다.

35.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삼권 분립을 채택하였다.
- ②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통치 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 ③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이동녕이 임명되었다.
- ④ 사료 편찬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답 3

국무총리는 이동녕이 아니고 이동휘이다.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 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 정부이다. 1920년 12월 8일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을 위해 상하이로 들어오자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독단적인 구미 위원부 설치 건과 국제연맹 위임 통치 건에 반대하였는데, 특히 러시아 연해주 거류 동포사회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에 통합되며 그들의 대표로 국무총리가 된 이동휘는 미국교포의 독립자금을 축내며 외교운동으로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36. 다음의 정치적 이념과 가장 거리가 먼 독립운동 단체는?

융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간에 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 구한국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 대한은 무시이래로 한인의 한(韓)이오 비한인(非韓人)의 한이 아니라 한인 사이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國憲)이오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 민성(民性)의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양위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 | | |
|---------|-----------|
| ① 신민회 | ② 대한독립의군부 |
| ③ 대한광복회 | ④ 조선국민회 |

답 2

박스안은 공화제를 말하는 것이다. ②의 대한독립의군부는 (1912년)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 복벽주의를 말한다.

* 공화제

군주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군주제). 군주제의 주권자는 혈통적으로 세습된 개인이며 국가권력의 발동과 행사는 군주 1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한다.

* 복벽주의 : 물러났던 임금의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조선왕조를 하자는 것

37. 다음의 사실이 논의된 연합국의 전시 회담을 옳게 연결한 것은?

- ㉠ 현재 조선인들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선을 자유 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
 ㉡ 루즈벨트는 신탁통치의 유일한 경험이 필리핀의 경우였는데 필리핀인은 자치 준비에 50년이 걸렸지만, 조선은 불과 20~30년 밖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
| ① ㉠ 카이로 회담 | ㉡ 포츠담 회담 |
| ② ㉠ 포츠담 회담 | ㉡ 알타 회담 |
| ③ ㉠ 카이로 회담 | ㉡ 알타 회담 |
| ④ ㉠ 포츠담 회담 | ㉡ 카이로 회담 |

답 3

㉠ ‘적절한 절차’라는 것을 보고 카이로 회담인 것을 알았다.

* 첫 회담은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미국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화민국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세 연합국 수뇌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세계전쟁에 대한 대응 문제로 모임을 가진 것이다. 당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는 대일전(對日戰)에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였고, 일본이 패전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하여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카이로선언>으로서 발표되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처칠과 루즈벨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 숙의하였고, 장제스와 함께 1914년 이래 일본이 점령한 모든 영토를 탈환한다고 합의하였다.

㉡ 조선신탁통치(朝鮮信託統治)는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의논하고 싶다고 제안한 대목이다. 루즈벨트는 “미·중·소의 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조선(朝鮮)을 신탁통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경험은 필리핀인데 자치(自治)를 위한 준비에 약 50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20년에서 30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스탈린이 반응을 보였다. “신탁통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한 마디였다. 대화의 진행을 보면 루즈벨트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과 사이 좋게 한반도를 오래오래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은 이것이 한반도 비이 회담으로부터 2개월째가 되는 1945년 4월12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병악화로 사망했다. 이러하여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한 트루먼 부통령은 외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가 제안한 조선신탁통치안(朝鮮信託統治案)을 매듭지어야 했다. 그에게 루즈벨트 조선인식(朝鮮認識)의 역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 다만 트루먼은 신탁통치 기간을 5개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현실화하여 조선신탁통치협정(朝鮮信託統治協定)을 확정했다.

38. 다음은 일제 강점기 학생운동 당시의 격문이다. 이 격문과 관련성이 가장 큰 것은?

- 학생, 대중이여 꺾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 ①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통치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 ② 신간회는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 열기를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일제가 신간회 간부를 대거 검거함으로써 좌절되었다.
- ③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④ 순종의 장례일에 3·1운동과 같은 거족적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답 2

박스안은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년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지금의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 학생들의 충돌이 계기가 되었다. 광주중학 3학년인 후쿠다 슈조[福田修三] 등의 일본인 학생이 광주여고보 3학년인 박기옥(朴己玉) 등을 희롱하였고 이를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朴準採) 등과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광주고보와 광주중학 학생들의 패싸움으로 확산되었고, 일본 경찰은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을 편들고 조선인 학생들을 구타하였다.

* 신간회의 참여

신간회는 학생들의 항일시위운동을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근우회·조선청년총동맹·조선노동총동맹 등과 함께 12월 13일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이관용(李灌鎔)·허헌 등 신간회와 근우회, 조선노동총동맹 등의 주요 간부 90여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민중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일제는 학생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조기에 실시해 학교를 폐쇄하고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광주학생항일운동 (두산백과)

39. 다음의 진행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 ㉠ 중국에서 신한청년당 조직
- ㉡ 조선어 연구회 발족
- ㉢ 6·10 만세운동
-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답 2

- ㉠ 1918
- ㉡ 1921
- ㉢ 1926
- ㉣ 1919.4

40. 다음의 내용을 발생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 6·15 남북공동선언
- ㉢ 금강산 관광 개시
- ㉣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답2

- ㉠ 1991
- ㉡ 2000.6.15
- ㉢ 1998.10.18
- ㉣ 2000.09.18
- ㉤ 1992.01.31

- 이선주 교수 -